

“구체적 합의 이루자” 의기투합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참석 중인 양측 대표단은 회담 첫날인 14일 오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남측 수석대표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광장동 위키힐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상선언의 핵심적인 합의 내용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이행기구 설립을 북측에 제안하고 공동 어로수역 설정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개성공단의 3통문제(통신·통관·통행) 해결을 위해 상시 통행, 통관 간소화, 인터넷 허용 등 제안하고 내년 3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에 맞춰 매달 상봉, 매주 재상봉을 여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측 단장인 김영일 내각 총리는 북한 안변과 남포 지역에서 조선협력단지를 조속히 건설하고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남측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 어제 서울서 개막 서해평화지대·개성공단 활성화 등 쟁점



한덕수 국무 총리(오른쪽)와 북한 김영일 내각 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광장동 위키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한 총리는 전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남측과 북측의 수뇌부들이 한 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총리회담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합의사항만 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회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제대로 이행된 합의들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총리선생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참한다”면서 “오늘 회담을 아주 잘해서 이번이 아주 전 국민들, 전 인민이 온 겨레가 바라는 결실을 맺도록 해야겠다”며 적극적인 회담 의지를 보였다.

남북은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한 총리 주치의 환영만찬 일정을 소화하고 15일 수석대표 회의와 실무 대표 접촉 등을 통해 정상선언 10개항의 이행로드맵을 합의문에 담기 위한 조율작업을 벌인다.

앞서 북측 대표단 43명은 이날 오전 11시에 전체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회담 대표들의 영접을 받았다.

김 총리는 공항에 도착한 직후 서면으로 배포한 도착성명에서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해 이번 총리회담에서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협의해결하고 좋은 결실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부노호 선원들 피랍 174일만에 가족 상봉



소말리아 해적에게 풀려나 13일 오전(현지시간) 예멘 아덴항에 도착한 마부노호의 선원들이 기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지옥의 바다 건너 가족 품으로

한국인 선원 4명 내일쯤 귀국할 듯

소말리아 해적에게 풀려나 13일 오전(현지시간) 예멘 남부 아덴항에 도착한 마부노호 1.2호 한국인 선원 4명이 이날 저녁 부산에서 온 가족과 감격스런 상봉을 했다.

12일 부산에서 한달음에 아덴으로 날아온 한국인 선원 가족은 한석호 선장의 부인 김정심(48)씨, 조문갑 기관장의 부인 최경금씨, 이승렬 총기관장의 아들 이재승(20)씨 등 3명.

선원들은 예초 이날 오후 6시에 아덴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가족이 늦어지자 줄담배를 피우며 초조하고 설렌 마음을 달랬다.

피랍 기간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초췌해진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아덴항에 내리자 마

자 말끔하게 이발도 하고 새 옷도 사 입었다.

오후 7시30분께 선원들의 숙소인 아덴의 머큐어 호텔 로비에 가족들이 나타나면서 6개월 간 생지옥을 겪었던 이들 선원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감과 미소가 환하게 번졌다.

원양 조업때문에 3년만에 부인을 만났다는 한 선장은 “좋지요. 좋다는 말밖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라며 “무뎠던 부산 사내답지 않게 부인을 힘껏 껴안았다. 김씨는 석방 뒤 남편 한씨가 김치를 먹고 싶다고 했으며 김치를 한 상자 담아 왔다.

아들을 만난 총기관장도 이씨는 “아들이 없었으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들 한국인 선원 4명은 이르면 16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연·연합뉴스>

“12살짜리도 해적질... 사람도 아닙니다”

■마부노호 선장이 전하는 해적의 실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종족이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풀려나 13일 오전(현지시간) 예멘 남부 아덴항에 도착한 마부노호 1.2호 선장 한석호(40)씨는 자신들을 6개월 가까이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해적을 떠올리며 ‘이가 갈리니’ 분노를 터뜨렸다.

그가 피랍기간 몸으로 겪은 해적의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 씨는 하라데레의 해적 본부는 집이 300 가구 정도 되는 마을인데 마을 전체가 해적 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중엔 12살 정도 밖에 돼 보이지 않는 소년도 총을 잡고 해적질에 가담했고 마부노 1.2호를 감시하면서 선원들을 폭행하고 총으로 위협한 해적 중 한 명은 13살 정도의 소년이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하라데레 근처의 해적은 소총 같은 게

인화기는 물론 대공 발칸포, 군용 트럭 등 정규군을 방불케 하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승렬 총기관장은 “해적 중 군사고문이라는 사람은 전직 군인이더라”며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이들을 지역을 지키는 민병대로 명명하고 뒤를 봐주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피랍 기간 마부노호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덴마크, 브라질, 이탈리아 인도 국적의 배도 함께 잡혀있었는데 이들은 미리 외국 선박의 항해 경로와 일정을 파악하는 정보력이 뛰어난 것 같다고 그는 짐작했다.

한 번은 해적이 “내일 배를 잡으러 간다”고 한 뒤 이튿날 아침 출발해 그날 저녁 바로 덴마크 선박을 잡아 왔다고 했다고 한다.

한 씨는 “해적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할 종족”이라며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죽이지 않았다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아닌 자들”이라고 분노했다. <이태연·연합뉴스>

“방만 경영 문화진흥원, 도덕적 해이 심각”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방만’ = 조호권 의원(민주·북구4)은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해 부채는 44억원으로 전 년보다 24억원 증가했고, 흑자는 3억 2천만원이 감소한 8천만원으로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2005년 1천900만원, 지난해에는 1천700만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했다”며 경영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중권 의원(민주·남구2)도 “지난해 광주시의 감사에서 직원승진 및 특별임용 부적절, 직원연봉계약 체결 부적절, 법인신용카드 부당사용, 국외여행 지급 부적절 등으로 주의나 시정명령을 받은 지적사항이 13건이나 된다”며 “특히 신분상 조치는 모두 6건으로 지난해 시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13일부터 각각 30여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2007년을 결산하고 새해 살림을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14일 진행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한다.

◇대부업체 불법 송금방식 처벌 = 손재홍 의원(민주·동구2)은 광주시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대부업체는 모두 550개에 달하지만 자치구별 대부업체 담당자는 1명 정도로 대부분이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미흡하다.

손 의원은 “최근 1년동안 불법 채권추심과 광고위반 등으로 120여개 업체가 적발됐지만 남구 3개

업체와 광산구 2개 업체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과태료 없이 시정조치를 내려 송금방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주여성 전용쉼터 마련 = 이명자 의원(신당·비례)은 “광주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이 가정폭력 등을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도 없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인권의 도시인만큼 전용 쉼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대선 정보 수집하라”

美, 지한파 인사들 방한 러시

미국이 12·19 한국 대선을 앞두고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한국을 방문중인 인사는 워싱턴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담당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다.

그에 앞서 주한 미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이 지난 5~10일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여기다가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무부 차관보를 비롯, 국제관계센터(IRC)의 존 페퍼 국제문제담당 국장, 미 의회 관계자들도 이미 방한했거나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전문가들은 출장아 20여명은 될 것”이라며 “정부측을 제외하고 학계나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전문가들 방한의 최대 목적은 과연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5주	11월 20일
	주택관리사	5주	11월 20일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료후환금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향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앞으로 세무직 많은 채용 예정!! =

7·9급
공무원
행정+공안+기술직

== 전국 유일의 정통 권위 강사진 총출강!! ==

개강: 11월 15일 주·야(총화)반 모집 (합격선수중)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www.kjkimyou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Final Course 개강

문제풀이반 6주완성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런? 12월 17일 개강

전문대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2학년인 마치고,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정점서) ☎227-9088

치솟는 유가! 현금, 목돈 탈출

겨울 난방 고민 끝~

귀뚜라미·병양

초절전형 냉난방기 리스 하자!

무료 구입 효과!

1. 사업지리면 100% 비용처리
2.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리스 요금 내고 남습니다
3. 보증금, 보증인 필요없음

무이자 12개월분할 최장 36개월 최저금리

최대 80% 연료비절약 (경유대비)

사무실, 식당, 주점 매장, 학원, 병·의원 교회, 빌딩, 공장 등 -무료 견적 상담-

귀뚜라미 가꾸로 냉난방기 (아산공장 순수 국내제작)

제품 구입 문의 및 상담 (남·여 직원모집) 080-372-2900 011-615-3399